

# 아카렌가 통신



2020년 8월 31일(월) 부터 9월 2일(수) 까지, 홋카이도청 국제과의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아카렌가 통신' 취재를 위해 소야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활동에 관한 국제교류원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홋카이도는 지금, 가을과 겨울의 경계에 놓여있습니다. 단풍과 낙엽들도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인지 계절의 변화가 별로 실감나지 않았지만, 잠시나마 마스크를 벗어보니, 얼굴로 불어오는 바람이 꽤 차가워졌다는 것도, 쌀쌀한 공기 속에서는 축축히 젖은 나뭇잎 향 같은 가을 냄새가 난다는 것도 비로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감각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 소야 종합진흥국 방문

### 국제교류원의 왓카나이-레분섬-리시리섬 방문기

9월 초, 저희 교류원들은 왓카나이와 레분, 리시리에 다녀왔습니다.



왓카나이는 삿포로에서 33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의 꽤 먼 거리이지만, 항공편을 이용하니 불과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계절을 앞서간 듯한 급격한 기온변화에 추위를 느꼈습니다.

### =바람의 도시 왓카나이=



바닷가 풍경과 바람 소리를 따라 도착한 곳은 '최북단 선로'를 볼 수 있는 JR 왓카나이 역이었습니다. 이 역에는 왓카나이 및 인근 지역의 특산물들을 판매하는 코너가 있는데, 가리비와 다시마 등의 해산물 가공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점심을 먹고, 먼 길을 이동하여 도착한 곳은 '하얀 길'이었습니다. 새하얀 가리비 껍질로 뒤덮인 언덕길을 오르는 도중에 뒤를 돌아보면, 빛나는 바다가 아득하게 보입니다. 차 안에서 보면 매우 낭만적인 풍경이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사방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에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이동 중에 창문 너머로 본 대자연의 풍경은 너무나도 웅장해 보여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저 하나의 작은 생명체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드넓은 구릉에 소를 방목하는 풍경이 펼쳐졌고, 도로에는 길을 잃은 사슴이 깜짝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북위 45도에 위치한 소야 곳에 도착했습니다. 홋카이도 최북단으로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평화와 협조'를 상징하는 비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바다 건너 사할린 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사루후츠 공원 휴게소'였습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지역 특산물들을 한 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월굴 전병, 가리비, 연어알, 소세지 등이 유명한 것 같습니다.



한편, 휴게소 밖에는 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는 젖소 떼들이 있었습니다. 소야 구릉에서는 곳곳에 소들을 방목하여 키우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새 없이 바람에 흩날리는 풀들은 파도처럼 물결을 치는 듯 했습니다.

이어서 '왓카나이 미도리 스포츠 파크'로 향했습니다. 이 곳은 컬링 뿐만 아니라, 검도, 양궁, 유도 등 다양한 종목들을 활성화 하고, 스포츠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홋카이도에서 컬링으로 이름난 '기타미' 지역 외에, 왓카나이에도 국제경기를 개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오니, 어느덧 해가 저 있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보물섬 레분=**

아침 6시 반 페리를 타기 위해 부지런히 떠났습니다. 왓카나이에서 레분까지는 페리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출발할 때는 비가 꽤 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이동 중에 날이 개어서 레분에 도착했을 때는 다행히도 맑았습니다.

레분은 남북으로 길다란 형태의 섬이며, 위도가 높아서,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꽃이 피어나는 곳입니다. 꽃들은 6월부터 8월까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저희는 레분섬의 최북단 지점인 '스코톤 꽃', 그리고 이어서 '스카이 꽃'을 방문했습니다. 스코톤 꽃에서는 레분섬의 최북단 지점에서 바라보는 푸른 바다를, 스카이 꽃에서는 육지로 둘러싸인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둘 다 육지가 바다 쪽으로 뻗어있는 '꽃' 지형이지만, 후자는 스카이 블루색의 물이 차 있는 연못 같았습니다. 볼록하게 융기된 주변의 험준한 지형은 지구의 '힘줄'같이 느껴졌습니다.



영화 '북쪽의 카나리아들'의 로케이션 장소인 '기타노카나리아 파크'에도 다녀왔습니다. 이 곳에서는 영화 촬영에 쓰인 초등학교 건물 내부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학교 부지 잔디밭에는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지고, 멀찌감치 리시리 섬도 보입니다.

점심으로는 홋카이도의 명물인 '창창야키'를 맛보았습니다. 창창야키는 홋카이도에서 가을철에 즐겨먹는 생선구이 요리입니다. 이름은 익히 들어 보긴 했지만, 실물을 본 건 처음입니다. 보통은 연어로 만드는데, 레분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임연수로 만든 창창야키를 먹어볼 수 있었습니다.



반으로 가른 뒤 숯불로 익힌 생선 살을 된장과 파와 함께 섞어 먹으면, 고소한 생선의 맛과 된장의 짭짤함이 어우러져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레분에서의 시간을 뒤로 한 채, 다시 페리를 타고 리시리섬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섬 리시리=**

레분섬에서 리시리섬까지는 약 45분 정도의 짧은 여정입니다. 리시리섬은 둘레가 55km정도여서, 차로 일주를 하는데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으며,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으로 생겨난 이 섬의 중심에는 해발 1700m가 넘는 리시리산이 솟아있습니다.



참고로, 이 산은 홋카이도의 명물 시로이 코이비토 과자의 포장지에 그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산봉우리는 높은 해발고도 때문인지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가 많지만, 가끔씩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저희는 마지막 날, 구름이 걷힌 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섬에서 처음으로 향한 곳은 라널드 맥도날드 상륙기념비입니다. 그는 일본인들에게 최초로 영어를 가르친 미국인 영어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상륙을 기념하여 세운 비석이 경치 좋은 해안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확 트인 바다가, 뒤로는 웅장한 리시리산이 있어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





이어서, 오타토마리 늪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리시리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늪'이라고 하면 왠지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소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타토마리 늪에는 푸른 하늘이 물 위에 떠있는 듯한 감동적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시설은 리시리초 성계종묘 생산센터였습니다. 성계라는 생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 것은 아마 인생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라성계', '말똥성계'라는 두 종류의 품종이 있다는 사실도 이 곳에서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품종 중, 말똥성계의 상품가치가 더 높고, 맛도 좋다고 하니, 여름철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를 찾아 홋카이도 여행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조에서 1년 동안 키운 성계는 그 크기가 바둑알만 했습니다. 굵게 돌힌 가시도 없어서 귀엽게 느껴집니다.



이번에 출장으로 방문했던 지역에서는 맛있는 해산물들을 맛보았습니다. '해산물이 다 거기서 거기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 신선하고 큼직한 재료들과 푸짐한 상차림에 홋카이도의 매력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가리비, 임연수, 참치, 전복, 성계알 등을 먹었는데, 모두 일품이었습니다. 왓카나이에는 얇게 썬 문어를 육수에 데쳐서 먹는 문어 샤브샤브 요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희는 리시리 고등학교에서 국제 교류를 테마로 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와 미국인 교류원은 홋카이도와 우호관계를 맺은 자국의 우호지역들을 소개한 후,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디스커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준 학생들 덕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교류 수업을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체험들을 했습니다. 센호시 미사키 공원에서는 바다표범에게 먹이를 줬고, 가무이 해안 파크에서는 바닷속의 성계알을 건져낸 후 씻어서, 즉석에서 손질해 먹기도 했습니다. 바닷물이 스며있는 성계알에서는 짭짤한 바다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다시마 교실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리시리에서 생산되는 다시마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다시마 가공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사이즈로 잘라서 봉투에 담은 다시마는 기념품으로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자재들을 직접 채취하고 가공도 해보니, 음식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동네 산책을 할 때, 바닷가에서 허리를 굽혀 다시마를 말리고 계시던 할아버지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저희들은 레분과 리시리에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고 돌아왔습니다. 낙도지역은 도시와 같은 화려함은 없지만, 계절마다 자연이 선사하는 보물들을 품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에 이곳을 또 방문하게 된다면, 그 때는 예쁜 별을 보고 싶습니다.

홋카이도 관광 PR 캐릭터 "**쿤짱**" 지역별로 각기 다른 모자를 쓰고 홋카이도를 방방곡곡 여행 중입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바로가기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초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